

## MR finding of pathologically proven primary CNS lymphoma

고흥균, 김동익, 윤평호, 정진일

연세대학교 진단방사선과

**목적:** 조직학적으로 확진된 중추신경계 림프종의 자기공명영상 소견을 알아보고자 하였다.

**대상 및 방법:** 조직병리학적으로 확진된 15 명의 23 개의 원발성 중추신경계 림프종을 대상으로 치료전의 자기공명영상 소견을 분석하였다. 환자는 남자 8 예, 여자 7 예 이었으며, 평균 연령은 54 세 ( 33-72 ) 이었다. 종괴의 다발성 여부, 크기, 영상강도, 위치, 괴사 여부, 조영 증강 양상 등을 관찰하였다.

**결과:** 대상 환자의 조직학적 진단은 11 예에서는 B cell, 4 예에서 T cell 기원의 림프종이었다. 자기공명영상소견은 6 예 ( 40 % )에서 다발성 병변을 보였고, 종괴의 평균 크기는 2.8 cm 이었다. 모든 예에서 T1WI 상 뇌피질과 같거나 낮은 신호강도를, T2WI에서는 22예 ( 96 % )에서 같거나 약간 높은 신호강도를 보였다. 조영 증강 자기공명영상에서 20 예 ( 87% )에서 경계가 잘 지워지는 종괴 양상을 보였고 나머지 3 예에서는 경계가 불분명한 조영증강 양상 이었다. 종괴 내부에 불균등한 조영 증강 양상을 보여 종괴내 괴사가 의심되는 경우가 5 예 ( 22 % )에서 관찰되었고, 이 경우 종괴의 평균 크기는 4.6 cm 이었으며, 균등한 조영 증강을 보이는 경우의 평균 크기는 2.0 cm 이었다. 중심성 종괴를 보이는 경우가 11 예 ( 47 % ) 이었으며, 전체 종괴 중 뇌실과 접하는 경우가 15 예 ( 65 % ) 이었다.

**결론:** 중추신경계 림프종은 자기공명영상 소견상 강한 조영 증강을 보이는 종괴의 형태로 관찰되며, 위치는 중심 기저핵과 주변부 피질의 차이는 없었다. 종괴 내부의 괴사는 전체 종괴의 크기가 클수록 많이 나타났다.